

# 상생 일깨우는 문화의 場 되길

## 지울 스님, 카페 '공간초록' 7월 중순 문열어

‘도룡뇽 소승’이 끝이 났다. 그러나 지울 스님의 천성산 사랑은 이제부터 또 다른 시작을 맞고 있다. 지울 스님과 천성산 지킴이 운동을 함께 해온 이들이 도심 한 가운데서 <초록의 공명>을 울려 퍼지게 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카페 ‘공간초록(가칭)’, 빠르면 7월 중순경 문을 연다. 부산교대 앞 한옥을 회원들이 직접 수리해 꾸민다.

그동안 천성산 운동을 함께 해온 이들의 마음을 모으는 터이자 일반 시민들에게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문화의 장이 도심 한 가운데 문을 여는 것이다.

천성산 터널 관통을 반대하면서 지울 스님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개발 반대만이 아닌 생명의 가치였고 우리가 잃어버린 진실성과 순수한 감성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스님은 대법원 판결로 모든 사람들이 천성산 운동의 실패를 얘기할 때, 오히려 이 운동의 확산을 꿈꾸며 공감과 교류의 공간을 열 생각을 했다.

대법원 판결 직전 부산의 거처를 정리하

고 영덕의 토굴로 들어갔던 스님은 ‘공간초록’ 준비를 위해 다시 부산에 왔다. 아직도 후유증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않지만 뜻을 함께 하는 운영위원을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많은 이들이 흔쾌히 동참했고 앞으로 월 1만원의 회비를 낼 회

## 천성산 사진展 등 자율 프로그램 운영 흥피도 정비, 일반인 위한 쉼터 될 전망

원도 모집한다. 생명의 가치, 자연의 가치를 알려내는 공간의 주인을 찾는 셈이다.

운영위원과 회원들이 이 카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지만 카페의 진정한 주인은 일반 시민들이다. 앞으로 이 카페는 천성산 지키기 운동에 함께 해 왔던 사진작가, 영상전문가, 교사, 교수, 화가, 환경운동가 등 많은 이들이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에게 선보이며 공간을 개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독립영화 상영, 천성산 사계 사진전, 지울 스님의 운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사진에 담은 사진작

가 이희섭 선생의 사진전 등 벌써부터 알찬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이 없는 공적 개념의 이 카페는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언제든 찾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 기능을 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 도심 한가운데 마련되는 ‘공간초록’ 카페와 함께 스님이 또 한 가지 공을 들여 준비중인 공간이 있다. 바로 온라인 상에 마련될 초록의 공명 카페(http://www.chorok.org). 천성산 홈페이지 천성산 운동 경과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천성산 유랑조사단 활동과 스님의 영덕 토굴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스님이 직접 파괴되고 있는 국토의 현장을 기본 후 쓴 ‘길에서 쓰는 편지’ 등으로 천성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삶의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

지울 스님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썼던 시간동안 정치, 경제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천성산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 공간이 우리 사회가 아파하는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남성중창단 ‘청공’

금산사 후원 창단연주회



6월 14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극장. 젊은 불자 성악가들로 구성된 청공(淸空) 남성중창단(단장 정성민이)이 드디어 창단연주회를 가졌다(사진). 2004년 1월 출범했으나 2년 6개월만이다.

이날 창단연주회의 주제는 ‘대중 속으로’. 지은아 부산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최근 한 해설과 피아노 김연주 씨의 피아노 반주로 오페라, 찬불가뿐 아니라 ‘눈물 젖은 두만강’ ‘빈대떡 신사’ ‘마장가’ 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선곡과 특색 튀는 무대 구성으로 객석을 압도했다. 이 밖에도 대행 스님 선시의 ‘공놀이’ ‘대장부’ 강연회 작사 작곡의 ‘기원’, ‘발원문’ 등 최근 작곡된 찬불가를 선보여 불교음악의 대중화에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산사 주지 무유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찬불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불교음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닿는 데 까지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천미희 기자



##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 홍순원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지방경찰청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올 5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이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개방됐다.

9층 옥상에 울산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용 망원경을 설치하고 8층에는 카페를 만들어 차를 마실 수 있게 꾸며놓았다.

또한 6월 5일 문을 연 20평 남짓한 추억의 공간이 코너에는 연한이 다한 경찰차와 싸이카를 어린이들이 경찰제복을 입고 직접 조작하며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꾸몄다. 경찰캐릭터를 이용한 포토존까지 만들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불어온 이 바람은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과 그로된 길로 가는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홍 청장은 불교 현장에서 뛰지는 않지만 불교에서 펼쳐는 복지나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다.

부임한지 2개월 남짓한 시점에 치러진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다. 봉축 기간동안에는 울산지방경찰청 역사상 처음으로 울산 시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대형 연등 두 개가 출입구에 불을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 내에 마련된 법당에서는 200여 명이 모여 합동 법회도 열었다.

## 경찰청 옥상에 설치한 포토존 인기 만점 봉축 기간 연등 걸고 시민들과 함께 법회도

모두 홍순원(58)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생긴 변화다. 경찰청 개방을 결심한 이유는 경찰청의 위치가 너무 좋아 혼자만 누리기엔 시민들에게 죄송해서란다. 홍청장의 평소 지론인 ‘시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울산 경찰이 되자’는 구호가 구호로 그치지 않고 경찰청내의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가 울산 경찰 조직 내에도 자연스럽게 전파돼 ‘부정과 인권유린을 했던 선배들의 업보가 후배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늘이 감동할 수 있는 정성 치안 ‘장인의 혼이 담긴 사건 수사’로 시민에 보은하자’는 홍청장의 말이 힘이 실리며 울산 경찰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신심 돈독한 불자인 홍 청장은 “종교나 경찰의 공통점은 사회가 더불어 잘

또한 불교계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을 찾아 무료 급식을 돕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나들이에는 싸이카로 안전한 여행을 선도하기도 한다. 이는 ‘대한노인회’의 명칭을 ‘대한어르신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해온 홍청장의 철학에서 비롯됐다. 어디든 부임하면 제일 먼저 경도당을 찾아 부임인사를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할 정도.

홍청장은 “종교나 경찰이나 수직적 조직보다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 연대를 펼쳐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을 늘 새기며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언제 어디서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불심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 “흔들리지 않는 일념으로 정진”

### 범어사 지장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입제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은 6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열리는 지장백일기도 및 고승대법회 입제법회를 6월 13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입제법회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심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구름이 해를 가리듯 인간의 욕망이 불성을 가리고 있어 볼 수 없는 것”이라며 “욕망을 걷어내고 불성을 보려면 돌아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일념으로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이 이미 부처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끓임없는 정진으로 한국불교의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천 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

행된 이날 법회는 오전 10시 지장기도를 시작으로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의 인사말,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의 입제법문 순으로 봉행했다.

고승대법회는 범어사 조실 지유스님의 입제 법문에 이어 6월 23일에는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의 초재 법문을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100 일 동안 열흘에 한 번씩 봉행된다.

암도 스님(7월 3일), 황대선원 조실 성수 스님(7월 13일), 미륵사 주지 백운 스님(7월 23일), 해인총림 울주 종진 스님(8월 2일),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8월 12일), 범주사 회주 혜정 스님(8월 22일),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9월 1일), 대흥사 조실 현운 스님(9월 11일), 창계사 조실 고산 스님(9월 22일)이 법문한다. (051)508-3636 이은아 기자

## 日 차법시연, 명차품평대회 등 다채

### 부산국제차문화대전 벅스코에서 14~18일



부산 국제차 문화대전추진위원회 주최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벅스코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차 문화 대전 2006’이 14일 오후 3시 개막식을 가졌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예능보유자인 송순섭 선생의 판소리 공연과 해운대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시작된 부산국제차문화대전은 한복을 곁에 차려입은 차인들로 성황을 이뤘다.

대회장 여연 스님은 대회사에서 “한국차와 차문화가 차인들에서 더 나아가 일반 대중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국제차문화인들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한국 차문화 발전에



부산 국제차 문화대전 참가자들의 시음 모습.

새로운 획을 긋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현재 추진위원회 부부장의 헌화, 김대철 상임추진위원장의 헌화와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정영호 한국다도협회 이사장

의 헌다로 이어진 헌다의식에 이어 내빈 33인 진다례 의식과 삼성궁 전통무예 시범으로 개막식을 마쳤다.

부산국제차문화대전은 18일까지 사생대회, 차례 시연, 세계명차품평대회, 차 만들기, 가루차 시연, 김성녀의 작은 음악회, 차문화 특강 ‘차와 예절’, 일본 15대심수관 차법시연, 일본 오모테센게 차법시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9일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6월 9일 고심정사 2층 불교대학 강당에서 창립총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김로사 주지 혜총 스님, 고심정사 주지 원택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부 창립 총회는 경과보고, 회칙 확정 및 임원단 선출 및 소개, 축사, 회장인사, 축하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동근 공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중심도시라고 자부하는 부산에서 창립

된 학회이니 만큼 더욱 내실 있는 학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5월 26일 전체 임원단 회의에서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던 강동근(동아대) 교수, 김용환(부산대) 교수, 일본 스에키 후미히코(동경대) 교수, 중국 웨이 따오위(북경대) 교수가 회원들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장성욱(인제대) 교수는 총무를 맡아 학회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게 됐다. 이어 열린 2부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불교와 근현대사회’라는 주제로 열렸다.

천미희 기자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

#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쪼다가 남겨놓은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방치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